

# 중소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중기중앙회, 600곳 대상 조사  
감내수준 이상 오를 경우 대응방안  
42% ‘대책없다’, 35% ‘채용 축소’  
80%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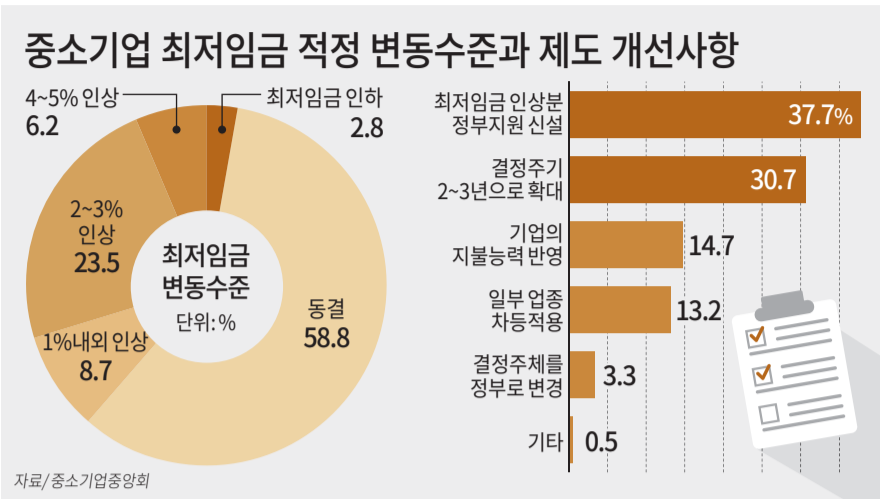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9860원)과 같은 ‘동결’은 58.8%, ‘인하’는 2.8%였다. ‘인상’은 38.4%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견딜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10곳 중 4곳은 ‘대책없다’고 응답했다. 10곳 중 3곳 이상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0곳 중 8곳은 현재 경영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매우 부담+다소 부담)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지난달 21일 시작했다. 올해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여부와 그동안 끊임없이 줄



다리기를 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일 내놨다.

조사에 따르면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한다’고 답했다.

‘인상’이라는 답변 중에선 ‘2~3% 이내’(23.5%), ‘1% 내외’(8.7%), ‘4~5% 이내’(6.2%) 순으로 많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감내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선 42.2%가 ‘대책없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답도 35%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임금동결 또는 삭감’(14.7%), ‘기존인력 감원’(6.8%) 등이었다. 많진 않았지만 ‘사업을 접겠다’는

답변도 0.8%였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인건비가 올랐을 때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대응하지 못함’이 40.5%로 가장 높았다. ‘판매 가격 및 납품단가에 반영했다’는 답변도 26.3%에 달했다. 이외에 19.3%는 ‘영업 등 타비용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37.7%) ▲1년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30.7%)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반영(14.7%) ▲가사·돌봄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13.2%) 등을 꼽았다.

1만원이 넘지 않는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응답 중소기업의 80.3%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고 답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크게 부담되지 않음+전혀 부담되지 않음)는 19.7%에 그쳤다.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상황에 대해선 10곳 중 8곳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45%)이거나 ‘악화됐다’(34%)고 답했다. 하지만 ‘호전됐다’는 21%였다.

내년 경영상황에 대해선 73.3%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좋지 않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19.2%였다. ‘호전’을 예상한 응답은 고작 7.5%였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그리고 내수부진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한다. 아울러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진공,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저변확대 지원

‘글로벌 이커머스 지원협력체’ 구성  
지원 기업으로 물류기업 한진 참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이커머스 지원협력체’를 구성했다. 물류기업인 한진은 지원 기업으로 참여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 DDP에서 중진공을 비롯해 글로벌 플랫폼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몰 등 5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글로벌 이커머스 지원협력 협약식 및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중진공은 협약을 통해 한진과 함께 국제특송, 포워딩, 물류 거점 지원을 비롯해 공동 웨비나 등 교육협력과 물류 지원 정책에 있어 협력을 이뤄갈 방침이다. 한진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해외 배송 서비스인 ‘원클릭글로벌’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연결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한진은 수출입 관련 물류 인프라인 인천공항GDC와 미국·일본 내 풀필먼트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글로벌 이커머스 지원협력 협약식에서 (왼쪽 3번째부터)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한진 조현민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트 센터 및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광범위한 육해공 물류망을 갖추고 있어 중소기업 고객들의 물류 고민을 덜고 있다.

특히 미국 LA 풀필먼트센터의 경우 미주 진출기업들의 호황으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풀필먼트 공간을 기존 3300㎡에서 4800㎡로 50% 가량 늘리는 계획이다.

한진은 수출을 도모하는 중소 셀러들의 해외배송 문턱을 낮추기 위해 ‘원클릭글로벌’을 선보인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물류센터 입고부터 통관 및 해외 배송 전반의 업무 과정을 간소화하고

결제·국내 픽업·쇼핑몰 제작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진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 기업들이 모여 뜻을 모으는 만큼 회사가 가진 물류 인프라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이커머스’는 접근하기 가장 쉬운 글로벌 진출 방법 중 하나”라며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에 화물차 구입 지원

중기중앙회, 현대차·E1과 맞선

중소기업중앙회가 현대자동차, E1과 손잡고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들을 위해 화물차 구입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8일 E1 본사에서 노란우산 가입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을 위해 현대차, E1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포터 EV 신차 구매 시 일반 할인에 추가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포터 LPG 신차에는 추가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E1에서는 포터 LPG 신차 출고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LPG 충전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오렌지 포인트’를 특별 제공하고, 결제금액 1000원



소상공인 동반 성장 및 LPG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제휴 조인식 (왼쪽부터)E1 김승구 국내영업본부장,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운영본부장, 현대자동차 안정일 국내판매추진실장이 업무제휴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당 30P를 적립할 수 있는 전용 멤버십 카드를 제공키로 했다.

특별 할인 혜택 조건은 3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가 현대자동차 포터(EV, LPG) 신차를 출고할 때 적용한다. 차량 구매계약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한다. /김승호 기자

## LX하우시스 ‘바닥재 에디톤 마루’ 출시

목재 마루보다 내구성·열전도성 높아

LX하우시스가 기존 목재 마루보다 내구성과 열전도성을 높인 바닥재 신제품 ‘LX Z:IN(LX지인) 바닥재 에디톤 마루(EDITONE MARU)’를 출시했다.

2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에디톤 마루’는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고강도 소재 ‘내추럴 스톤 코어(Natural Stone Core·천연석 분말과 고분자 수

지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한 보드)’를 적용해 선보이고 있는 ‘에디톤’ 시리즈의 바닥재 신제품이다.

‘에디톤 마루’는 기존 목재 마루와 달리 나무합판 대신 ‘내추럴 스톤 코어’ 소재를 제품 코어 층에 적용하고 그 위에 고해상도 마루 디자인층을 입혀 기존 목재 마루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목재 마루의 최대 단점인 썩힘 문제를 개선했다. /김승호 기자

## 시몬스 자녀 침대프레임 ‘도미크’

시몬스가 아늑한 동화 속 침실 분위기를 2024 봄여름 신제품 자녀 침대 프레임 ‘도미크(Domic)’를 내놓았다.

2일 시몬스에 따르면 도미크는 높은 지붕 형태의 헤드 보드가 아이의 상상력을 더하는 슈퍼싱글(SS) 전용 프레임이다. 레트로 무드의 스트라이프 패턴과 화사한 컬러가 침실에 발랄함을 더한다. 컬러는 오렌지레드와 스카이블루 총 2종으로 컬러별 풋보드 디자인이 상이하다. /김승호 기자

## 작년 여성기업 2001곳 컨설팅 2784건 지원

여경협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가 여성기업인이 경영일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특화된 역할을 하고 있다.

2일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 애로사항들을 전문위원과 선배 여성 CEO 멘토링단이 무료 상담을 통해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성기업 2001개사를 대상으로 2784건의 컨설팅을 지원해 만족도 점수 98.6점이라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상담 희망분야로는 경영, 마케팅, 수출, 자금, 인사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

상담 건수는 수도권, 부산, 대전 순으로 많았다.

경기 의왕에 있는 유아용품기업 모구는 저가의 중국산 공세와 코로나 이후 경기 악화로 인해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2022년부터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의 수출 컨설팅을 꾸준히 받으면서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얻어 현재 일본, 대만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는 창업·경영전략, 마케팅, 수출·무역, 자금·회계,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예비 창업 여성 또는 벤처·중소 여성기업 등 여성기업이라면 누구나 여성기업 경영애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